

## 환경교육, 무엇을 가르치는가?(3/3)

김지형



내가 남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꼭 그가 내게 전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가르친 것이 곧 학생들이 배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나는 생각하는 방법, 과학적인 태도에 대한 논의에 가장 관심을 쏟는다. 일상의 언어와 과학적 공학적 언어의 차이, 수학의 언어성, 결과와 결론 이전에 문제의 정확한 정의, 답 이전에 답에 이르게 되는 생각의 과정 따위에 대한 이해와 훈련.

나는 이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의 미래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게 더 재미있다.

### 뜬금없는 뻔뻔한 고백 하나

교수의 가르치는 일에 대한 우스개 같지 않은 우스개 하나. 30대에는 모르는 것도 가르치고, 40에는 아는 것만 가르치고, 50에는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60에는 생각나는 대로 가르친다나 어떤다나?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지나온 시간은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뻔뻔한 고백이다.

### 뱀 다리 01-문제의 시작

새삼스럽게 환경교육이라는 문제를 꺼내 든 건 아무래도 환경, 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범위가 너무 넓은 데서 비롯되었을 터이다. 환경공학이라는 단어조차도 그 범위와 뜻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환경공학 분야를 넘어서 환경재료공학, 환경화학공학, 환경에너지기계공학, 환경생태공학 따위의 단어가 쉬이 눈에 띄고, 공학의 받침이 되는 과학 분야에서도 흔히 말하는 물화생지(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모두와 환경은 짝을 지을 수 있다. 어찌 이뿐이라? 공학과 과학을 넘어 환경경제, 환경경영, 환경미술, 환경음악까지 있다. 가끔 내가 생각하는 환경공학 분야에서라도 뭔가 좀 표준교과목과 강의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해본 건 아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하니 일이 쉬이 정리되기는 아예 글렀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뭔가 하여야 한다면, 환경, 환경공학이란 단어에 대한 정명 正名, 뜻하는바, 대상으로 삼는 범위에 대한 합의가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환경 뒤에 과학도 공학도 아닌 그냥 학을 부쳐 환경학이라는 부를 수 있는 언어가 가능하다면, 환경학에 대한 지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학생에게 줄 수 있다면, 학생이 교실을 넘어 여행하는 데 좋은 지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뱀 다리 02-환경공학, 위생공학

일반적으로, 공학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복지와 편의를 도모한다. 환경공학이라는 분야는 사람이라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위생공학(衛生工學)이란 말이 쓰였던 때가 있다. 영어의 sanitary engineering을 번역한 말이고, 우리에게 위생이란 말은 주로 건강과 관련하여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그냥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살피면, 생(生)을 지키는 학문이 된다. 생은 넓은 의미에서 생명 혹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뜻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모두의 삶, 살림살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환경공학은 인간의 편익과 복지라는 차원보다는 훨씬 근본적인 목숨을 지키는 차원에 놓여있기도 하다. 환경교육이라는 주제 속에서 한 번은 생각해봄직하다.

< 김 지 형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환경교육위원회 위원/No.1386

